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6)

유영구 / 중앙일보 북한 전문기자

김두남

당중앙군사위원회인 김두남 대장은 평북 벽동군 화전민 태생으로 외교부장 김영남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석주화학공장에서 노동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그는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전사한 아버지 덕분에 만경대혁명학원에 다닐 수 있었다.

6.25 때 강건군관학교를 마치고 소대장으로 참전한 그는 1963년에 소련 군사아카데미를 마치고 귀국한 뒤 당군사부(책임지도원)에 발을 들여놓았고 줄곧 그곳에서 성장했다. 1975년에 당군사부 부부장, 1982년 10월에 부장에 임명됐는데 이는 그가 당과 군을 연계하는 중추 신정에 해당하는 '정치군인'이었음을 의미한다.

그가 당군사부장 자리를 1984년에 김강환에게 물려준 뒤 어떤 군사 보직을 맡았는 지를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적이 없지만 과거 경력으로 보아 1985년 이후 김정일의 군사 보좌역

으로 일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1985년 4월 대장 승진). 그의 최근 활동은 1995년 7월 최광·이을설·이봉원·박재경과 함께 김정일의 금수산기념궁전 건설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에 자리를 함께 한 것이 거의 전부다.

그는 김정일에게 개별적으로 군사학을 가르친 인연으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김정일에게 군사학을 가르친 교수로는 그 외에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의 총장 최인덕(차수)와 부총장 김순일(중장), 김상호(제1군단장) 등이 꼽힌다.

김두남은 김정일의 군사 보좌역일 뿐 아니라 군내에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또 비정규 및 정보병 무력의 현대화에 적극 나서 김정일의 지시를 관철시켜 왔다고 한다.

그는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당중앙검사위원,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된 뒤 1982년 8월에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됐다가 정치국에서의 군출신 퇴진 분

위기와 맞물려 1986년 11월에 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1982년 4월과 1992년 4월, 즉 인민군 창건 50주년과 60주년을 맞이해 이하일과 마찬가지로 김일성훈장을 연속으로 받았다.

오룡방

오룡방 대장은 당중앙위원·군사위원으로 현재의 군 보직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군단장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북간도로 이주해 민족주의자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다녔다. 1946년에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했고 1949년 초에 회령 군관학교에 들어가 군사 교육을 받던 중 6.25가 터지자 김일성 호위부대 분대장·소대장·중대장 등을 거치게 된다. 그 뒤 그는 1955년에 소련 군사대학에 유학을 갔다가 1959년에 귀국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 지도원·책임지도원·과장 등을 역임한다. 정치장교로 활동하던 그가 야전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군 총참모부 작전국 부장에 임명된 1963년이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군 통수부에서 일하는 행운을 누렸다.

이같은 행운은 그가 북한의 빨치산 영웅 오중흡의 유격대 5형제(사촌간)의 한명인 오중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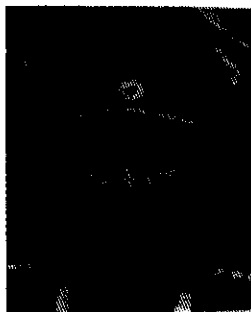
있다. 오극렬이 유격대 5형제의 한사람인 오중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극렬과 오룡방은 6촌간이라 할 수 있다.

그뒤 오룡방은 13사단장(1966년), 부군단장(1972년), 3군단장(1974년), 후방군 기지사령관(1978년) 등을 거쳤다(1992년 4월 상장, 1995년 9월 대장). 그는 현대적 군사과학 이론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지휘 통솔 능력과 작전 구사 능력이 뛰어난 유능한 군사 지휘관이라는 평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쪽에서는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80년 10월의 6차 당대회에서 후보위원 겸 당군사위원, 1986년 2월 당중앙위원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가 1992년 10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된 것이 확인 가능한 주요 경력의 하나이고 1982년 4월에 김일성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김명국



김정일의 군사 무관을 지낸 김명국 대장은 현재 평양방어사령관으로 김정일의 측근으로 떠오르는 별이다. 그는 1995년 10월



10일의 당창건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정일의 바로 뒤에 계속 서있는 모습이 TV화면에 잡혀 측근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그는 김정일의 군사 무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에선 인민무력부 부부장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는다. 군사 무관 시절에 김정일에게 입체전 개념을 심어주고 군 전력 강화 계획을 제기했다는 관측이 있다.

외부에서 그를 주의깊게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1992년 2월 인민군 중장 자격으로 김정일 탄생 50주년 기념 인민무력부문 연구토론회에서 토론에 나선 것이다. 대개 이런 행사에는 김정일의 측근이 나서기 때문이다. 그는 그해 4월 군창건 60주년을 맞아 상장으로 진급했고 2년 뒤인 1994년 4월에 대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1995년 들어 김정일의 군관련 행사에 동행하는 일이 잦다. 그는 2월 291군부대 여성해안포 중대 및 해군 155군부대 시찰, 3월 집단체조 '영원히 높이 모시리' 참관 및 인민군협주단 공연 '장군님 따라 부르는 심장의 노래' 관람, 3월 인민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 4월 군창건 63주년 기념 1017군부대 방문, 6월 853군부대 방문, 8월 인민군 훈련일꾼회의 참가자들 접견 및 인민군 여성해상훈련 지도, 9월 893군부대 민경초소 시찰, 10월 당창건기념탑·청류다리·금릉2동굴 개통

식 등의 수행자였다. 그는 앞으로도 김정일의 군관련 행사에 거의 행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도일 차수 사망(1994.7.1)으로 공석이 된 평양방어사령관에 발탁되고 1995년 3월에는 당군사위원으로 진입해 명실상부한 차세대의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다.

그가 당쪽에 진출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9년 6월에 당중앙위 후보위원, 1991년 12월에 당중앙위원회에 각각 선출됐다.

귀순자 강병도씨는 김명국이 "비록 직급은 낮은 편이지만 인민무력부와 김정일 집부실을 연결하는 중간 지휘자급 비공식 채널을 갖고 있다"고 전한다. 김정일도 소장파 장성들의 군심 파악을 위해 김명국 채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일철



김일철 대장은 현재 해군사령관으로 당중앙위원·군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평양 태생인 그는 일제 때 철공소에서 노동을 하다가 김일성의 사촌 동생 김원주가 만든 지하서클에 가담했다가 체포, 투옥된 경

력을 갖고 있다. 해방후 공산당의 열성분자로 활동하다가 1946년에 평양학원에 들어가고 이듬해 보안간부훈련소에 들어가 해군 교육을 받았다. 1948년 훈련소 졸업과 동시에 원산기지 해군함정 부중대장으로 임관했고 6.25 때는 해군 부전대장·전대장으로 참전했다.

그 뒤 그는 1955년에 해군대학에 들어가 1958년에 졸업했으며 곧바로 해군 서해기지사령부 참모로 임명됐다. 1962년에는 소련 해군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가 1968년에 귀국해 해군 사령부 참모로 해군에 복귀했다. 해군 전문교육을 거친 뒤에 승진을 거듭해 1968년에 해군 사령부 부참모장, 1971년에 참모장, 1974년에 해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으로 승진하면서 북한 해군의 최고위층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그가 해군 현대화의 주역으로 통한다. 현대적인 해군 함정 및 대형잠수함(2천 톤급) 건조에 힘쓰는 동시에 수중 지하갱도 해군기지 건설에 노력해 김일성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1968년의 포에블로호 납치도 김일철이 진두 지휘했다는 설이 있다.

그가 해군사령관이라는 사실은 1985년 9월 무렵 확인되었지만 실제로는 1978년부터 이미 사령관이었던 것임이 분명하다(해군사령관 확인 당시 상장, 대상 승진은 1992년 4월). 이 무렵부터 최근까지 해군대표단장으로 구소련과 중국, 쿠바, 인도네시아 등지를 방문하는 등 군사 외

교를 펼쳤다.

그의 경력이 대외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군사위원에 선출되면서부터였다. 그 전에는 비교적 비밀에 가려져 있어 해군에서의 그의 경력이가려져 있다가, 고위급 귀순자에 의해 그의 과거 경력이 드러났다.

그는 1982년 4월에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김일성 사망 직후 군에서 처음으로 해군을 대표해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다.

그의 최근 활동으로는 1995년 2월 김정일의 해군 155군부대 시찰, 3월 김정일의 인민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 6월 김정일의 853군부대 방문 등에 동행한 것이 두드러진다.

박기서

박기서 대장은 당중앙위원·군사위원으로 현재 820기계화 군단장이다.

그의 군 경력은 1970년 2월 인민군 부대장(단위 미확인), 1989년 상장을 거쳐 1992년 4월 김정일이 664명의 장성을 진급시킬 때 대장으로 진급했다는 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거의 전부다.

그는 당쪽에서 1970년 11월의 5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986년 2월 당중앙

위원, 1995년 3월 당군사위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1982년 4월과 1992년 4월 2차례에 걸쳐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다른 고위 장령급(장성)들처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1982년의 7기 이래 계속 역임하고 있지만 이 자리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

그는 1995년 3월에 김정일이 인민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하는 자리에 배석했고 10월에는 김정일과 함께 당창건기념탑·청류다리·금룡2동굴 개통식에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김정일과 친척 관계라는 ‘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김하규



김하규 대장은 현재 포병교도지도국 국장(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당중앙위원·군사위원이다.

그의 아들 5형제가 모두 군관이어서 북한에선 화제의 인물이다. 그는 1992년 10월 제2회 포병대회에서 보고를 맡아 북한 군에서 중시되어온 포병 분야의 1인 자임을 내외에 과시했다. 당쪽에서는 199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중앙위원으

로 승격했으며 군사 칭호로 보면 1988년 7월 중장, 1992년 4월 상장, 1995년 10월 대장 등의 부난한 승진을 거쳤다.

그는 최근 김정일의 군관련 행사 참가에 동행함으로써 군부내의 위상이 만만치 않음을 입증했다. 즉 1995년 2월 291군부대 여성해안포 중대 및 해군 155군부대 시찰, 3월 집단체조 ‘영원히 높이 모시리’ 참관 및 인민군협주단 공연 ‘장군님 따라 부르는 심장의 노래’ 관람, 6월 853군부대 방문, 8월 인민군 훈련일꾼회의 참가자들 집진과 인민군 여성해상훈련 지도, 9월 893군부대 민정초소 시찰 등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봉원



이봉원 대장은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총국장을 맡고 있으며 당중앙위원·군사위원이다.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간도지방으로 이주해 서당·야학을 다닌 이봉원은 아버지가 빨치산 전사자였던 덕택에 만경대혁명학원 1기생으로 졸업했으며 1949년에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에 입학했다. 1953년에 모스크바종합대학으로 유학갔다가 1956년에

귀국해 방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당간부 생활을 시작했다. 책임지도원시절에 함남도당을 당당, 반종파투쟁 이후의 잔존분사 색출에 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 뒤 조직지도부에서 계속 근무해 1967년에 부부장까지 올라갔다. 조직지도부 시절에 김정일과 돈독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시당 책임비서(1970년 8월), 황해남도당 책임비서(1975년 5월) 등 당업무를 주로 맡은 그는 개성시당 책임비서 시절 ‘붉은 시민화’ 보호를 앞세워 개성 토박이에게 불순분사 딱지를 붙여 타 지역으로 추방했던 장본인이다.

그러다가 1976년에 돌연 제2집단군 정치위원으로 파견되면서 ‘정치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1984년 11월 중장, 1985년 4월 상장, 1992년 4월 대장). 그 해에 김정일이 군 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당간부들을 ‘정치위원’로 임명, 군복을 입혔기 때문이다. 군내에 김정일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는 일찍이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됐으며 1980년 10월의 6차 당대회에선 당중앙위원·군사위원에 각각 선출됐다.

이봉원은 1986년 10월부터 군총정치국 부총국장을 맡아왔다. 총정치국장을 인민부력부상 오진우가 겸했기 총정치국의 실무는 이봉원이 전담하다시피 해왔다. 1995년 2월 오진우가 사

망하자 이봉원이 총정치국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지만 10월 군부 인사의 뚜껑을 열고 보니 공군사령관 조명복이 총정치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오고 이봉원은 변화가 없었다. 김정일이 빨치산 원로들을 계속 우대하는 상황에서 그들과 사이가 나쁜 것으로 알려진 이봉원을 발탁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귀순자 강명도씨는 “김정일의 신임을 잃은 이봉원은 단지 거품 파위만을 갖고 있을 뿐”이며 “굳이 빠른 소상과 상교들도 그를 이미 좋아 호랑이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진우 오락될 갈등 관계를 부추겨 중간에서 어부지리를 누려왔지만 능력 부족과 인사 질이면 너름에 집착하는 개인 행태 때문에 버지않아 자리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김정일 생일 경축연회와 군부의 총성집회에 빠짐없이 모습을 나타냈다. 김정일의 군부대 시절에도 그림자처럼 붙어다녔다. 1995년 정초의 214군부대를 비롯해, 1월 인민군 9차 선동원대회 참가자들 집견 및 무용조곡 ‘장군님 만들어 군민은 한마음’ 공연 관람, 2월 291군부대 여성해안포중대 및 해군 155군부대 시찰, 3월 집단제조 ‘영원히 높이 모시리’ 참관 및 인민군협주단 공연 ‘장군님 따라 부르는 심장의 노래’ 관람, 3월 인민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 4월 군장

건 63주년 기념 1017군부대 방문, 7월 금수산기념궁전 건설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 8월 인민군 훈련일꾼회의 참가자들 접견 등 김정일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어김없이 현지에 대기하거나 배석했다.

장성우

장성우는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청년 및 3대 혁명소조부장)의 친형으로 최근 북한 군부의 막강한 실세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1995년 10월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5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총열병지휘관으로 등장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북한이 이전의 군창건일(4.25)과 전승기념일(7.27)의 군사퍼레이드 때 김광진 등 차수급 인물이 열병지휘관을 맡은 전례는 장성우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장성우의 현 직위는 수도권 방위를 맡고 있는 제3군단장이고 얼마 전까지는 사회안전부 정치국장을 맡았다. 1993년 4월 장성우의 환갑 잔치에 김정일이 직접 선물을 들고 집을 찾아갈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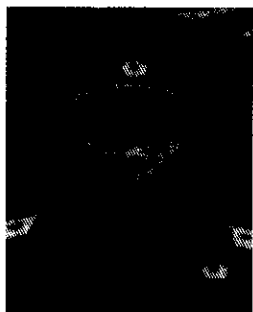
그의 경력에서 양간래의 정보가 있다. 강원도 출신으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마친 엘리트 군부 관료라는 설과 당조직지도부에서 성장했다는 설이 엇갈린다.

장성우는 1991년 사회안전부 정치국장이 된 이후 김정일의 군최고사령관 및 원수 추대, 김일성의 대원수 추대를 지지하는 사회안전부 군부자집회 때마다 집회를 이끈 경력이 있다.

그의 활동 경력은 1980년 이후 것들만 공식 확인되고 있다. 1980년 10월 6차 당대회 때 당 중앙위원으로 이름이 처음 공개되었다. 그 뒤 1991년 12월 사회안전부 정치부장으로 확인됐고 1992년 5월에는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직책이 사용됐다. 이것은 사회안전부의 기구명 변경에 따른 직책 변화로 보인다. 그가 군출신임을 보여주는 경력은 1984년 5월에 인민군 중장의 군사 칭호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언제 상장으로 진급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대장 승진은 1992년 4월이었다. 그러나 그가 1980년대 중반에 군사 칭호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야전 출신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봉원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조직지도부 출신이 군정치위원으로 진출하면서 군사 칭호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그가 1973년 당조직지도부 과장, 1977년 조직지도부 부부장, 1978년 김일성고급당학교 제1부교장 등을 맡았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1980년 이전의 이같은 경력이 사실이라면 당에서 군으로 진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박재경



박재경 상장은 군보직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정도로만 알려져왔다.

그는 1995년 들어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 때 한번도 빠지지 않고 수행함으로써 이복을 끌며 급부상하고 있다. 박은 김정일의 214군부대 방문(1월1일)의 수행사로 최광 차수(당시 총참모장), 이봉원 대장(총정치국 제1부총국장, 조직담당), 남상락 상장(214군부대장) 등과 함께 따라 다녔다.

그는 1월 28일 김정일이 9차 군선동원대회 참가자들을 접견하는 자리와 그날 오후 군협주단 예술인들의 공연(무용조곡 '장군님 반기기' 군민은 한마음)을 관람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어 그는 2월 김정일의 최진방 291부대 이상 해안포병중대 및 해군 155군부대 시찰에도 동행했다. 또 3월 김정일의 집단제조 및 인민군협주단 공연 관람, 같은 3월에 김정일의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개막식 및 기념 촬영 자리에 또 어김없이 배석하는 등 김정일 동행은 그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6월 853군부대 방문, 7월 금수산기념궁전 건설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 8월 인민군 훈련원문화의 참가자를 접견 및 인민군

여성해상훈련 지도, 9월 883군부대 민경초소 시찰 등에도 박재경이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직책에 관한 단서는 군선동원대회를 통해 드러났다. 대회 보고자로 등장한 그는 "군인들을 김정일의 절대적인 숭배자로, 당과 수령을 복속으로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튼튼히 준비시킬 것"을 촉구, 군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유도했다.

이 대회는 1983년의 8차(4.18~20)에 이어 12년만에 열린 것이었다. 8차 때는 군총정치국 부총국장 윤치호 중장(1988년 사망)이 보고자였다. 이것은 박재경이 현재 총정치국 부총국장을 암시한다. 그가 원명균 상장, 이이준·오경훈 중장 등 다른 부총국장들을 제치고 전면 부각된 것이다.

또 1995년 2월10일 평양에선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부려부 발표회'라는 특이한 행사가 열렸는데 이날 박재경은 발표에 나서 김정일을 향해 '21세기의 위대한 영도자', '인류의 영원한 태양' 등으로 온갖 수사를 동원해 추앙했다.

이같은 활동으로 보아 박재경은 선전 담당 부총국장일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그가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을 늘 수행하는 것을 근거로 당조직지도부의 군담당 책임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박재경은 아직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1983년 12월)에 불과해 정치적 성장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